

시스템통합으로 보험 업무 핵심 DBMS 환경 최적화

서울보증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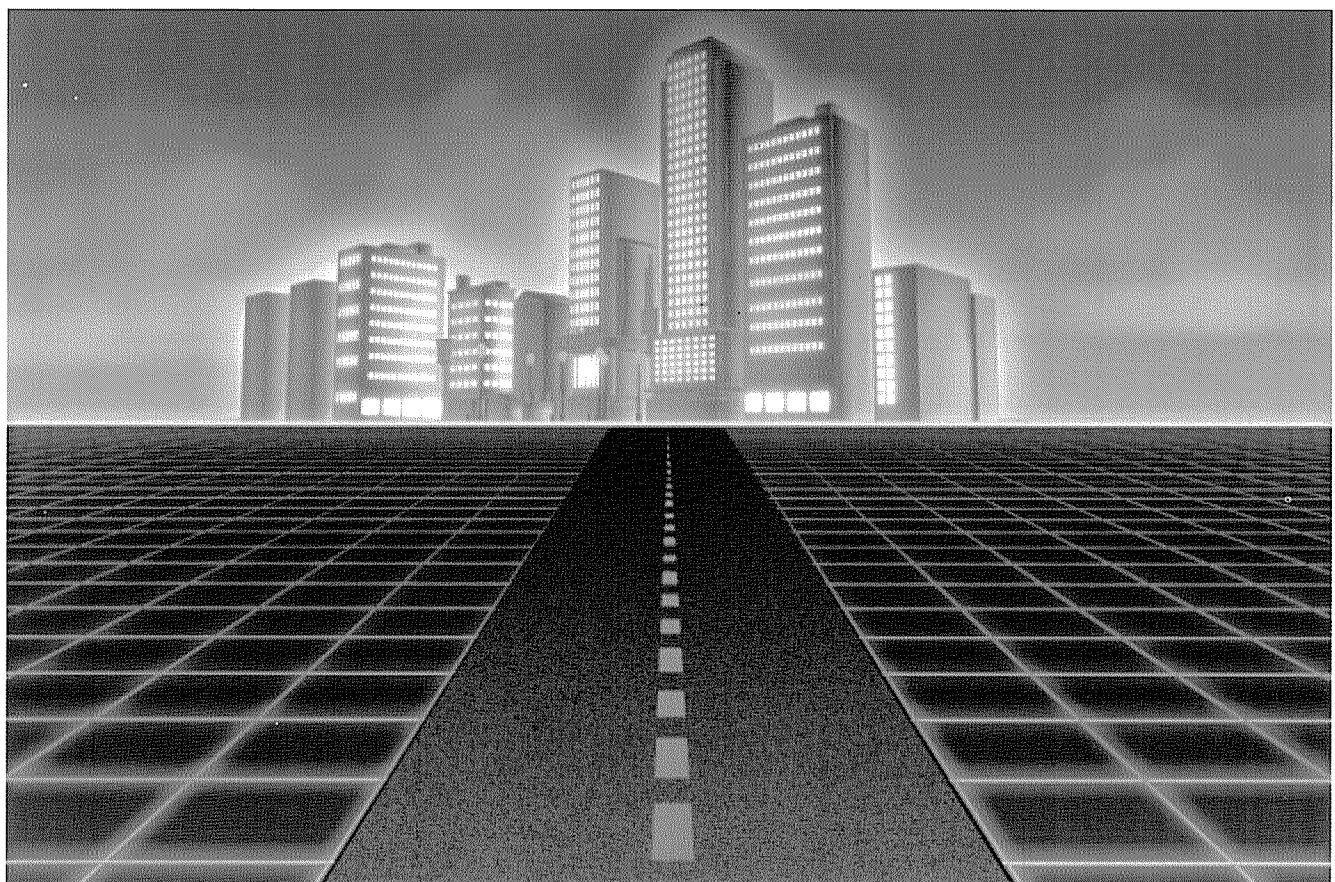
분 야 : 금융(보험)

솔루션 : p690, AIX 5L V5.1, HACMP

구 성 : 데이터 이중화를 지원하지 못하는 기존 장비의 단점과 시스템 노후로 인해 시스템 신규 도입 사례.

p690 2대와 오라클 9i로 데이터 이중화를 실현했으며, IBM LTO 장비와 백업 솔루션을 통해 백업을 진행했음.

한국 IBM 웹서버 사업부 이관용 차장



서울보증보험은 IMF 직후인 지난 1998년 11월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이 합병해 새롭게 출범한 국내 최대 보증 전문 기관으로 현재 국제신용보증협회(ICIA)에 등재된 회원사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우량 회사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12월 한국IBM과 『서울보증보험 서버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 장애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철저한 장애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보증보험은 IMF 직후인 지난 1998년 11월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이 합병해 새롭게 출범한 국내 최대 보증 전문 기관으로 현재 국제신용보증협회(ICIA)에 등재된 회원사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우량 회사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12월 한국IBM과 『서울보증보험 서버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 장애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철저한 장애 대책을 마련했다.

방카슈랑스 시대 본격 개막

보험 상품 판매 방식이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 시중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하여 일반 개인과 법인에게 광역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은행 지점을 보험 상품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해 은행원이 직접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방카슈랑스는 서구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돼 일반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9월 3일에 처음 등장했다. 방카슈랑스는 출현과 동시에 금융권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방카슈랑스가 시행된 후 10월 24일까지 은행, 증권사, 상호

저축은행 등 98개 금융회사에서 판매된 보험 상품은 모두 18만 5,000건으로 보험료가 7,889억원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방카슈랑스가 올해 최대의 이슈로 등장하자 보험사들은 서서히 고객들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영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제공되던 금융 포털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품 검색 위주에 그쳤지만 방카슈랑스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개인 및 기업 대상의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뱅킹이 보급된 지 4년 만에 인터넷 거래가 창구 거래를 추월하고 있다는 사실도 온라인 보험 서비스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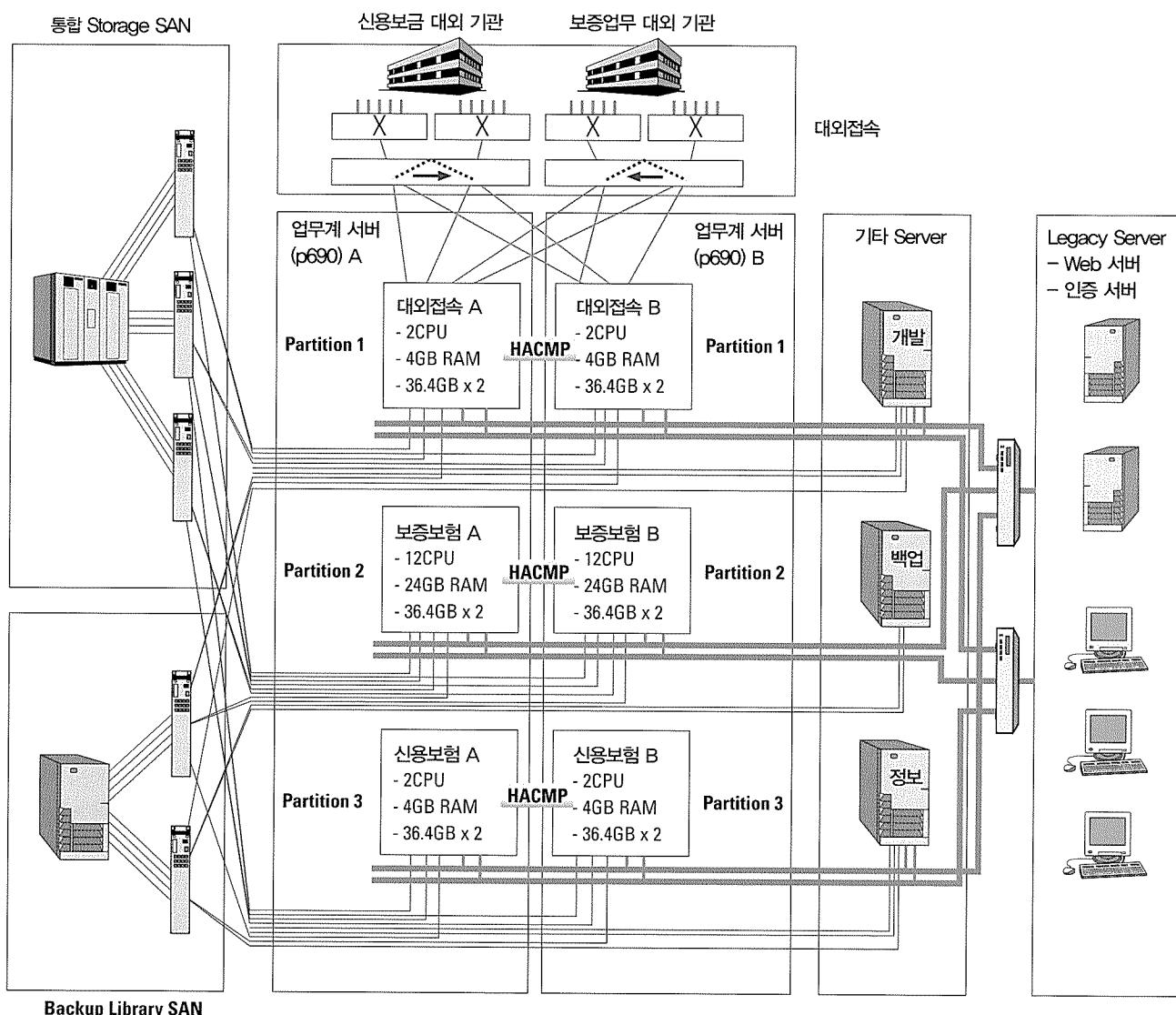
이 같은 시장의 판도 변화에 따라 도입된 지 4~5년이 지난 노후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 업계에서 시스템을 재구성하거나 시스템 통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과 방카슈랑스 등 판매 방식이 다원화된 현 시점에서 시스템 통합을 통한 대고객 만족 서비스의 교두보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 추진된 『서울보증보험 서버 통합』 프로젝트도 이 같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HACMP를 통한 장애 발생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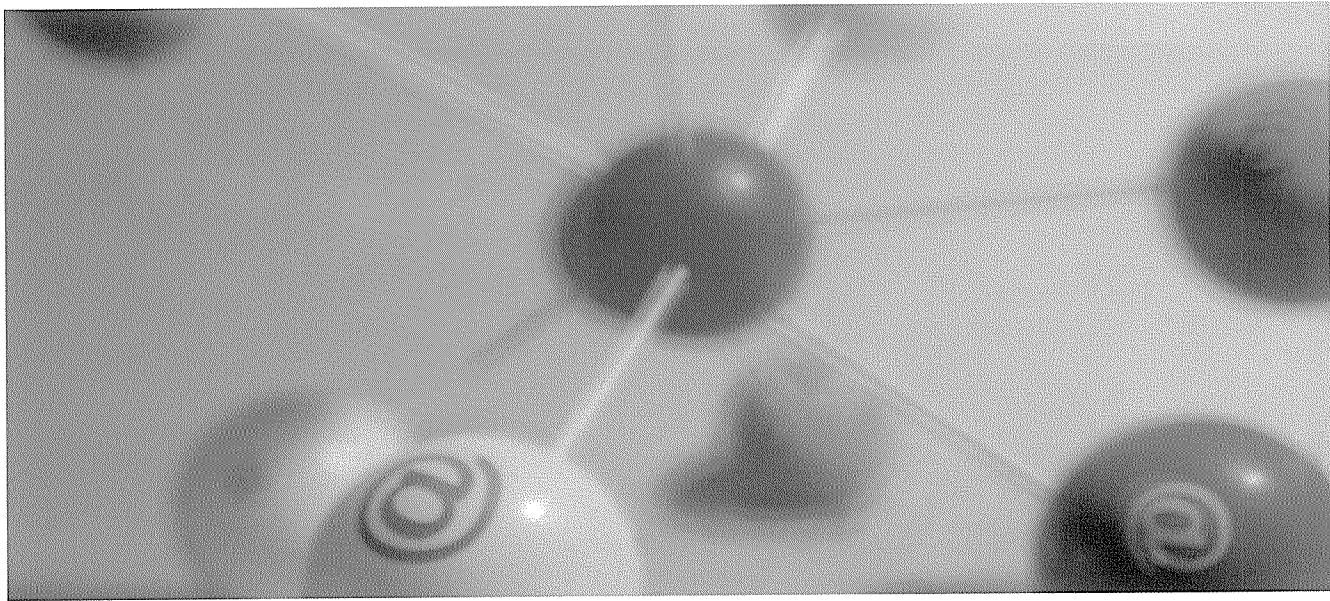
서울보증보험은 고객 관련 IT 인프라를 도입한 것은 7년 전 회사의 전신이었던 대한보증보험 시절이었다. 이때까지 후지쯔 메인프레임을 주 전산 자원으로 사용하던 서울보증보험은 급변하는 IT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시스템 환경을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솔라리스 기반의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엔터프라이즈 6000 7대, 엔터프라이즈 3000 4대, 오라클 7i를 기반으로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해 지난해까지 사용해왔다. 하지만 분산 처리 시스템의 경우 해마다 늘어나는 서버의 수적 증가에 따른 IT 관리 비용과 전반적인 IT 자원의 비효율성, 그리고 시스템 자원

의 노후화 등의 문제점으로 현 IT 트렌드에 맞는 시스템 통합을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이 무장에 시스템을 위한 이중화 지원이 미비했다는 것도 이번 프로젝트 추진의 또 다른 배경이었다. 지난해 8월 서울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서버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안 작업을 진행하고 BMT를 실시했다. 제안에는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했으나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F15K와 HP의 슈퍼돔 그리고 IBM p690 3 개사 제품이 최종 경합을 펼쳤으며, 결국 IBM 시스템이 채택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IT 전략팀 현영중 과장은 “pSeries가 CPU 속도와 기존 업무 테스트,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



[서울보증보험 서버 통합 프로젝트 시스템 구성도]



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한국IBM이 금융권 분야에 관한 업계 최고 수준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선택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6개월간 지속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데이터 처리 능력과 안정성, 그리고 기존 애플리케이션 이관 등이었다. 서울보증보험의 트랜잭션은 업계 최고 수준인 1일 평균 337만1,000여 건. 트랜잭션 가운데 보증보험 업무가 약 79%를 차지하고 있고, 신용보험이 14%, 그리고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이 약 7% 정도다. 한국IBM은 현재 3개 업무에 필요한 총 처리 속도가 22만 4272tpmC 정도라 예상하고 향후 3년간 데이터 및 업무 증가율과 오라클 RAC 환경을 고려해 약 39만7661tpmC를 지원할 수 있는 p690 2대(대당 최대 203.018tpmC를 지원 가능)를 최종 제안했다. 그리고 한국IBM은 24×365의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금융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p690을 보증보험 업무(12웨이 4GB 램)와 신용보험(4웨이 4GB 램), 대외 접속 업무(4웨이 4GB 램) 등 세 파티션으로 나누고 이를 이중 통합 서버 시스템을 구성했다. 그리고 IBM의 LTO로 백업 환경을 구축했다. 노드나 어댑터 및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HA 솔루션(HACMP)과 CPU 디얼로케이션(Deallocation) 가능, 메모리 칩킬 기능 등 안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특히 p690 모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HACMP는 유닉스 기간 업무에 필요한 24×365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 복구 솔루션으로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스크, 랜 등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초 이내에 자동으로 장애를 검출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백업 솔루션으로는 베리타스의 넷백업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튜닝 작업에는 프리사이즈(Precise for

Oracle)가 각각 사용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IBM과 서울보증보험은 총 프로젝트 기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월 동안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을 수행했으며, 마감 한 달 전부터는 1주일에 1회씩 총 4회의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2년 12월 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대고객 서비스 제공 및 지식 경영실현

이번에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24시간 온라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HACMP를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즉각 복구할 수 있는 장애 대응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관리자의 편의성을 높여 다각적인 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관리 환경도 마련했다. IBM AIX 시스템 관리 솔루션인 SMIT를 통해 장치 관리와 원격 고객 지원 서비스, 소프트웨어 설치와 유지보수 그리고 문제점 판별과 서버 자원 등 총체적인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 이번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 현영중 과장은 “과거보다 고객의 불만 사항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만족감을 피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서버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3년간 추가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정도의 충분한 인프라를 마련했다. 현영중 과장은 “현재는 방카슈랑스 시대를 맞아해 온라인을 지원하는 IT 시스템 확보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점”이라며 “지난 해에 완료된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훌륭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를 고객 감동 구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서비스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